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미국증시, 종전 기대에 물가 부담 받고 상승 마감

- 미국 증시 반등 : 나스닥 +2.52%, 러셀2000 +3.02%
- 트럼프 “이란과 합의 목전”..유가금리 하락, 주가지수 상승
- 미국 5월 PPI 예상 상회, ECB는 3년만에 금리 인상

Summary

미국증시 반등: 다우 +1.86%, 나스닥 +2.51%

6월 1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 미국의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이날 저녁으로 예정된 가운데 초반 그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했던 증시는 오전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마무리돼 오늘 예정했던 공격을 취소한다고 밝히자 본격적 상승으로 방향을 잡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쯤 합의문에 서명할 수 있다는 발언, 또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이라는 발언 등이 전해져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오름폭을 확대. ECB의 금리 인상, 예상을 웃돈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이날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진 이슈들은 그 배경이 결국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있다는 점에서 전쟁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쇄.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86% 상승한 50,848.75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1.75% 상승한 7,394.30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2.54% 상승한 25,809.66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도 3.29% 급등 마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3% 이상 상승. 변동성지수 VIX는 12.51% 반락한 19.44에 마감.

(다우 +1.86%, 나스닥 +2.54%, S&P500 +1.75%, 러셀2000 +3.02%)

트럼프 “합의 임박”..이번엔 진짜?

오후 들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낙관이 급속도로 확산. 장 초반까지만 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오늘밤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와 함께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크섬과 주요 에너지 시설을 장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며 이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악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중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오늘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며 현재 이란과의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힘. 그는 주요 합의문이 이란 최고 지도부에 전달돼 승인을 받았으며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역내 주요 국가들의 지지도 얻었다고 밝힘. 이후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며칠 내로 최종 문서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며 “주말쯤 유럽에서 서명식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 또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은 공식적으로 재개방될 것”이라고 덧붙임. 이란에서도 이란 측 요구 조건이 반영된 이번 합의가 지도부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옴. 변죽만 울리던 이전과 달리 실제 합의 성사로 이어진다면 이는 2월 말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전쟁을 사실상 종식시키는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여 시장의 기대 역

시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다만 로이터는 양측의 정치적 수준의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은행 동결 자금 해제 방식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은 아직 남아 있다고 전하기도.

미국 5월 생산자물가지수 예상 상회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예상을 크게 상회. 미국 노동부가 집계한 5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달에 비해 1.1% 상승해 시장 예상치 1.1%를 크게 웃돌았고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6.5% 상승해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함.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으며 실제 에너지 가격은 전달 대비 10.7% 급등. 휘발유 가격도 한 달 새 23.4% 상승해 전체 재화 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류비와 운송비 상승으로 이어져.

다만 전일 소비자물가지수에서도 확인했듯 물가 상승 압력의 경제 전반으로의 확산은 제한적.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에 비해 0.4% 상승해 시장 예상치 0.5%를 하회했고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도 4.9%로 헤드라인 수치 내비 크게 낮아짐. 여기에 이날 이란과 미국 사이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며 물가 상승의 주 요인이 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진 것도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수의 부정적 시장 영향을 제한하는 매개가 됨.

ECB, 주요국 중 첫 금리 인상

유럽중앙은행(ECB)은 금리 인상을 단행. ECB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를 이유로 들며 예금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2.25%로 0.25%p 인상. ECB의 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9월 이후 약 3년만의 일로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주요 7개국 중앙은행 중 처음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실행에 옮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금리 결정 이후 “중동 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돼 상당한 에너지 충격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부문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 ECB는 이날 물가 전망도 상향했는데 올해 유로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로, 내년 전망치는 2.3% 수준으로 제시함. 반면 성장률 전망은 하향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미 연준은 다음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음.

특징종목

AI 기술주 반등: 반도체 강세-소프트웨어 약세

반도체를 비롯한 AI 기술주 전반이 강하게 반등. 엔비디아(+2.22%), 브로드컴(+3.6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66%), AMD(+7.97%), 인텔(+9.27%), 텍사스 인스트루먼트(+5.35%), 퀄컴(+6.15%), 샌디스크(+14.50%), 시게이트 테크놀로지(+6.38%), 웨스턴 디지털(+8.00%) 등 메모리, 스토리지를 포함 대부분 종목군이 상승. 최근 알파벳, 메타, 아마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등의 잇따른 자금 조달 이슈로 AI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 빛을 내 투자를 감행하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의 수익성에 대

한 의구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막대한 자금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집행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반도체주 실적 상황 요인이라는 점에서 시장 전반적 투자 심리 완화 속에 관련 반도체주가 강하게 상승.

특히 인텔(+9.27%)은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투자의견을 두 단계 상향한 영향으로 오름폭을 확대했음.뱅크오브아메리카는 에이전틱 AI 확장에 따른 CPU 수요 폭증, 그 대표적 수혜주로 인텔을 꼽으며 기존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을 철회하고 그 보다 두 단계 높은 '매수'로 투자의견을 제시함. 한편 이날 세미 애널리시스는 인텔에 대해 최근 급격히 커진 시가총액을 감안하면 사업 전환과 확장 노력을 위한 추가 자본 조달을 고려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평가하기도.

최근 UBS가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서도 특히 장비 업종의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낙관적 의견을 개진한 바. 한국증시에서도 반도체 장비주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날 미국증시에서도 램 리서치(+12.65%),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1.19%), KLA(+12.92%) 등이 두자릿수 대 상승 탄력을 보여줌.

반면 마이크로소프트(-1.77%), 오라클(-8.53%)를 비롯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체로 약세. 특히 오라클은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전분기 실적과 연간 이익 전망이 시장 기대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발표했던 200억 달러를 포함 400억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한다는 소식에 과도한 자본지출로 인한 수익성 악화 우려, 기존 주주 지분 가치 희석 우려 등을 반영해 낙폭을 확대함. 이외 서비스나우(-2.81%), 세일스포스(-2.62%), 인튜이티브(-2.57%), 오토데스크(-7.10%) 등도 동반 약세.

마감 이후 실적 발표를 앞둔 어도비(-6.25%)도 낙폭을 키워 2019년 1월 이후 최저를 기록,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내줌. 이날 하락으로 주요 지지선 225달러대를 이탈한 어도비(-6.25%)는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 전망을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발표했음에도 시간외 거래에서 낙폭을 키워 추가 하락.

이날 인텔과 오라클의 움직임이 특히 엇갈린 가운데 인텔 편입 비중이 높은 ETF는 상승세를 탔지만 오라클 편입 비중이 높은 ETF는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등 기술주 ETF 내에서도 편입 종목 면면에 따른 엇갈린 흐름이 눈에 띄었음.

상승: LINT(+18.03), FTXL(+8.04%), MFMO(+4.51%), SHOC(+6.93%), SMF(+6.75%), SOXX(+8.39%), QQQA(+6.76%), SOXQ(+7.93%)

하락: IGV(-0.72%), ORCU(-19.35%), CLOD(-0.17%)

유가 하락: 에너지주 약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합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다시 한 번 자극한 가운데 국제유가가 내림세를 타자 에너지주는 약세. 엑슨 모빌(-2.67%), 셰브론(-

2.10%), 코노코 필립스(-3.80%), EOG 리소시스(-2.67%), 옥시덴탈 페트롤리엄(-2.85%), 데번 에너지(-4.27%).

이외에도 시장 전반이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락 변동성을 확대하는 구간에서 방어적 성격으로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헬스케어, 필수소비재 업종이 시장 대비 부진한 흐름.

이외 특징주: 비트코인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약세로 돌아서는 등 안전 자산 선호 쪽으로 힘이 실리자 비트코인도 반등. 이에 코인베이스 글로벌(+4.20%), 마라 홀딩스(+7.84%), 스트래티지(+4.16%), 로빈훗 마케츠(+6.80%), PROSHARES BITCOIN(BITO)(+2.49%) 등의 관련주가 강세.

기업 출장 관리 플랫폼 업체 나반(+8.43%)은 급등. 회사가 현재 진행 분기와 연간 매출 전망을 시장 예상보다 높게 제시한데다 전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 나반은 기업 출장 수요 회복과 기업 고객 증가를 실적 개선 배경으로 제시함.

알루미늄 생산 업체 알코아(+5.23%)는 전일 급락 이후 모건스탠리가 최근 낙폭이 과도하다며 매수 의견을 확인하며 반등.

중국 베이징시 시장 감독 관리국이 주요 전자 상거래 플랫폼들을 소집해 규제 점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알리바바(-1.43%), 바이두(-1.17%), 징둥닷컴(-1.37%), 핀뎬뎬(-0.64%) 등은 약세.

구글이 로컬 서비스 광고의 주택 매물 카테고리를 미국 50개 주 전역에 확대 적용해 하나의 플랫폼에서 주택 구매자와 중개인을 연결한다고 밝혀. 이에 질로우 그룹(-3.08%), 코스타 그룹(-4.62%) 등의 관련 업계 경쟁자로 꼽히는 기업들은 약세.

북중미 월드컵 개막에 스포츠 베팅 플랫폼 드래프트킹스(+4.27%)는 사흘 연속 상승.

이외 스페이스X 상장을 하루 앞둔 가운데 금리 하락이 더해져 우주 관련주 투자 심리도 대체로 양호.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급반락

국제유가는 장 중 급락 전환해 하락 마감.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이란 공습을 취소하고 이란과의 협의가 임박했음을 시사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돼 장 중 유가 급락으로 이어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 트루소셜에 이란과의 논의가 이란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오늘 저녁으로 예정했던 이란에 대한 공습과 폭격을 취소했다고 밝힘.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0.38달러에 마감했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58% 하락한 배럴당 87.71 달러에 마감. 브렌트유는 지난 4월 17일 이후, WTI는 5월 29일 이후 최저치.

국제 금가격은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장 중 급반등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 회복에 부담을 느끼는 모습.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장 중 4,050달러대를 하회하며 8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고 이후 반등해 4,200달러선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오름폭 반납하고 0.47% 소폭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114달러대 기록. 7월 인도분 은 선물 가격도 장 중 반등세를 뒤로 하고 다시 온스당 64달러대로 밀림. 이외 구리 가격은 강보합권에 머무름.

미 국채금리 하락: 30년물 5% 하회

미 국채 금리는 장기물을 중심으로 전 구간에서 하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사실상 타결됐다고 밝히며 유가가 하락했고 이와 함께 국채금리도 장 중 하락폭 확대. 와후 들어 치러진 30년물 국채 입찰에서 발행 수익률이 두 달 연속 5%를 웃돌았고 발행 전 거래 수익률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등 다소 부진했지만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 완화에 더 크게 반영해 금리는 하락 흐름을 유지.

2년물 금리는 8.1bp 하락한 4.0619%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9.1bp 하락한 4.461%를 기록. 만기가 가장 긴 30년물 금리는 7.4bp 하락한 4.955%를 기록.

이날 하락으로 10년물 금리는 4.5% 선을 하향 이탈했고, 30년물 금리 역시 5%선을 하향 이탈.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45% 수준으로 전장 대비 10%p 이상 높여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0%아래로 내려갔으며, 두 번 인상할 가능성도 2%대를 하회.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5% 수준을 기록.

달러 하락-유로 상승

미국 달러화 가치는 이란과 종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장 중 급속도로 높아지며 하락. 장 초반 미국과 이란의 긴장 고조에 강제 압력을 받던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취소한다고 밝혔고 이란에서도 미국이 이란의 요구를 수용했기에 종전안이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약세 전환. 장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유럽에서 이란과의 합의안에 서명할 수 있다며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이 공식 개방될 것이라고 말하자 하락폭을 확대.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 중 99.579선까지 하락하기도 했으며 0.25% 하락한 99.694에 마감. ECB가 3년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유로-달러 환율은 0.321% 상승한 1.1578달러를 기록. 파운드-달러 환율은 0.331% 상승한 1.3416달러를 기록. 최근 160엔대를 지속 상회하던 달러-엔

환율은 159.93엔으로 160엔 아래로 내려옴.

한편 전일 서울환시 주간 거래 종가를 1,528.90원에 형성한 달러-원 환율은 이보다 2.70원 상승한 1,531.60원에 야간 거래를 마침.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증가 대비 12.65원 하락한 1,514.90원에 마감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